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2022 동계 단기어학연수 Canadian College of English Language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3.01.02. - 2023.01.29.				
1.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월화수목은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코어수업을 진행하고 20분 쉬는시간 후 10시20분부터 11시50분까지 코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30분의 점심시간 후 12시 20분부터 1시50분까지 일렉티브 수업이 진행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에 간단한 카페가 있지만 강의실 주변에 의자와 탁자, 전자레인지가 있어 집에서 요리해 가져와서 먹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코어 수업은 listening, speaking, grammar, reading, writing 등등 모든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어 수업은 매일 speaking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옆사람 또는 그룹을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학교에서는 영어만 써야하므로 매일 정해진 주제에 맞게 대화를 하다보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어 수업과 달리 일렉티브 수업은 listening and speaking, grammar, writing, reading and speaking 등의 반으로 나뉘어있으며 배우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날 orientation을 하고 말하기 테스트와 그램머,문법 등의 테스트를 통해 코어반이 결정되는데 반은 110, 115,120,125,130,140,145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코어반의 등급과 일렉티브의 등급은 동일합니다. 2. 참가 성과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영어만 사용해야 했으므로 익숙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만 대화를 나눠야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엔 계속 단어를 찾게 되고 문법 맥락 상관없이 생각나는대로 말하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겨 말하기 전 올바른 구조의 문법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외국에서 살다보니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은 문법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말하게 되었고 비슷한말로 변형하여 말하면서 말하기 영역에서 매우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렉티브 수업을 listening and speaking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매주 주제를 정해주시면 친구들과 대본을 만들어 앞에서 연극하거나, 정해진 주제에 맞춰 찬반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통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요경비

교육비 : 1,600,000

숙소비 : 2,000,000

빅토리아, 시애틀 교통비 : 330,000

픽업비 : 250,000

왕복 항공권 : 2,726,400

보험 : 19,500

통신비 : 78,500 (아이폰 at&t 30일)

식비 : 1,000,000

4.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한달 동안의 외국생활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단순히 여행만 한 것이 아닌, 여행도 하며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었고 좋은 외국인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만 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자리를 바꿔주셔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처음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설렘고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어로 피피티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 룸메이트들은 하지 않아 억울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만드는 과정에서 단어를 찾고, 이 문장이 맞는 문법인지 등을 확인하며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카페를 가도 식당을 가도 단순히 주문만 하고 끝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몰토크가 재밌어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날씨 너무 좋다고 여기 인테리어 예쁘다고 말을 걸며 간단하게라도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수업 끝나면 외국인 친구들이랑 그대로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많이 친해져 SNS 친구도 맺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며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영어 실력은 더 늘어갔으며 외국인 친구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우리도 한국 치킨 집에서 한국 치킨과 떡볶이를 경험시켜 주는 등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서 요리를 자주 하곤 했는데 룸메이트 친구들과 같이 장을 보고 메뉴를 정하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었고 같이 빨래, 설거지, 청소 등 역할을 나누고 같이 생활하거나 같이 여행 계획을 짜고 주변 식당을 알아보는 등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타지에서 친구들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잊지 못할 한달이었으며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가고 싶고 동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5.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계속 검색하여 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어와 숙어를 계속 암기하고, SNS를 통하여 외국인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여 문법,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2) 진로계획

대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고려하고 있던 나에게 이번 단기 어학연수는 너무 유용했다. 한달동안 외국에서 먹고 여행하고 생활하며 일만 하지 않을 뿐, 미리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집 찾기, 학교 찾기 등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6.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 겁먹지 말기.

계속 말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끼므로 친구들과 많이 대화하려고 하기.

8. 활동사진(2장 이상)



캐나다, 빅토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의사당



미국,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캐나다, 밴쿠버
스탠리 파크



캐나다, 밴쿠버
개스타운

